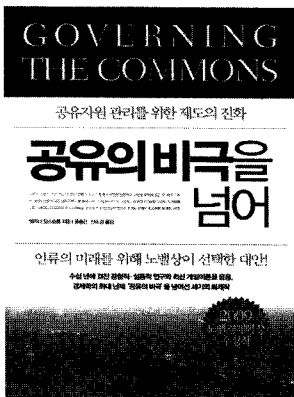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 책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출간한 *Governing The Commons*(1990)의 국문 번역서로서 관개 배수와 관련된 전공서적은 아니지만, 관개배수 정책에 관심 있는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읽어볼만한 책이다.



[저자]
Elinor Ostrom

[발행기관]
랜덤하우스

[발행연도]
2010

이 성 희

sain@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소

먼저 저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교수로서, 2009년 여성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다.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제도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분야의 권위자로서 1990년 저술한 “Governing the Commons”라는 책을 통하여 “산림, 물과 같은 공유자원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으며 완전히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뛰어 넘어, 공동체를 통해 관개시설을 관리해온 여러 나라(필리핀, 스리랑카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시장 또는 정부라는 이분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공동체적 자치관리”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1992년 “Crafting Institutions for Self-Governing Irrigation System”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관개관리에 있어 자치관리(Self-Governing)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관개배수를 전공자들은 그의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관개관리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농업인의 참여가 저하되고 있고 자치권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트롬의 저서와 논문을 통한 주장은 눈여겨 볼만 하다.

그는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 서울총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가 되었고, “Governing the Commons”을 국문으로 번역한 “공유의 비극을 넘어(랜덤하우스)”가 출간되어 국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책의 제목에서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1968년 생태학자 개럿 하딘(Hardin)이 주창한 이론으로 “어느 마을에 공동 소유하는 목초지가 주민들의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황폐화가 되어 간다는”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정부가 개입하여 목초지의 양(羊)의 수를 제한하거나, 목초지를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기는 방법(사유화)이었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이러한 상식에 대하여 사람들은 공유자원을 남용하기만 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나 시장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여러 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공유의 비극”을 뛰어넘는 자치관리(Self-Gover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제 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 : 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제 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제 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제 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제 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특히,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치제도 우수사례로서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제도,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공동체를 들고 있으며, 이는 2000년 이전의 우리나라 농지개량조합체계의 관개관리체계와 유사성이 많이 있었다.

또한, 5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갈오야 관개사업체제가 어떻게 자치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갈오야 지구는 농업연구훈련원과 코넬대학교 농촌개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농업용수 이용자 조직(WUO)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조직자의 주도아래 농업인들을 훈련시키고 자치조직(WUO)을 구성하여 관개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관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자치관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치관리 공동체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지역공동체들의 자치관리(Self-Governing)가 정부규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분	공동체의 특징
명확한 경계	공유자원의 범위와 그 사용자가 분명해야 한다
규칙의 부합성	쓸 수 있는 자원의 양 등을 정한 규칙은 현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집합적 선택장치	규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규칙 수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시활동	공유자원의 현황은 적극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단속요원은 사용자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한다
점증적 제재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례로 강도가 높아지는 점증적 제재를 받는다
갈등해결장치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수준의 갈등 해결장치가 있으며, 당사자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사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국가 같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